

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, '건설교통신기술의 날'로 확대 개최한다

- 4월 25일 기념식에서 건설교통 기술발전 유공자 시상
... 신기술 개발·활용 촉진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(회장 박철)는 4월 25일 “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” 기념행사를 개최한다.
 -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'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.
 -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“건설교통신기술의 날”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.
 - 건설·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.
 -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.
-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,041개*이다.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** 이상 적용되어,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.
 - * 신기술 지정 : 1,041개(건설신기술 981개, 교통신기술 60개)
 - ** 건설현장 활용 : 59,355건(건설신기술 58,922건, 교통신기술 433건)
-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('24.4.9.~4.28.)하였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)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,

-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(신규성, 진보성 심사) 통과 후, 2차심사(현장적용성 심사)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.

② (공모형신기술 도입)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.

-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*를 통해 지정하는 ‘공모형 신기술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.

* 공모주체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KAIA)

□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,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.

○ 특히,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·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,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명준 | (044-201-3549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승환 | (044-201-3558) |
| 담당부서 |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준형 | (044-201-3002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하보운 | (044-201-3818) |

□ 행사 개요

- (목적) 신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을 통해 건설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의 날 행사 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화합의 장 마련
- (일시) 2024. 4. 25.(목), 11:00~12:00
- (장소)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(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, 양재동 소재)
- (주최)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
- (후원) 국토교통부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- (참석대상) 300여명
 -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, 장관표창 수상자 등

□ 주요 행사내용

- 개식 및 국민의례
- 기념사(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철 회장)
- 축 사(송석준 국회의원)
- 유공자 표창 수여(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)
 - 장관표창·상장 20명 중 친수 19명
- 치 사(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)

① 신기술 신청 시 시공실적 제출기한 완화

- 신기술 지정 신청시 시공실적에 관한 서류는 1차심사 통과이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시기 개선

* 신기술 접수에서 1차심사까지 약 3개월의 기간과 1차심사 탈락시 불필요한 서류 (시공실적 등)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

| 현행 | 개선 |
|---|---|
| <p>① [접수] 신기술 지정 신청 접수시 시공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(의무화) ※ 시공실적 및 증빙서류 누락시 신청요건 불충분으로 반려</p> | <p>① [접수] 신청서류 제출 * 시공실적 미제출시 1차심사 이후 제출토록 요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p> <p>② [의견조회, 2개월 소요] 관계기관 의견조회 관보공고 및 이해관계 의견 접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p> <p>③ [1차심사위원회, 1개월 소요] 통과시 개발자에 시공실적 관련서류 제출 요청 * 시공실적 제출시 현장실사 등 심사 진행</p> |

② 공모형 신기술 지정방식 도입

- (정의) 기술혁신 선도 및 공공이 요구하는 기술테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활용 확대
- (지정절차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KAIA)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기술을 모집, 이후 심사절차는 기존 방식과 동일
 - ※ 기술테마를 제안한 발주청에서 기술테마와의 부합성 등을 사전검토, 부적합 시 기존 지정방식으로 심사 진행
- (인센티브) 공모형 신기술 지정 시 관련 발주청 기술마켓 등록 심사 면제, 시험시공 지원사업 대상 기술로 선정

| | 현행 신기술 | 공모형 신기술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접수 | 수시형 | 공모형 |
| 심사위원회 | 외부전문가 | 내부(발주청 소속 전문가) + 외부전문가 |
| 인센티브 | 현행 건설신기술 지정 혜택 | 현행 건설신기술 지정 혜택 + 발주청 기술마켓 등록시 심사 면제 시험시공 지원사업 대상 |